

제주시 인구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유입, 유출인구의 사회경제적 속성 비교를 중심으로*

권 상 철**

요 약

인구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으로부터 선별적인 이동성향을 보이는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고려해 볼 필요가 크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미세자료를 이용해 제주시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시의 인구이동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지역과의 교환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취업과 학업이 중요한 사유로 추정된다. 제주시는 도내에서는 취업과 취학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역할하며 동시에 육지부로도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는데, 취학을 위한 이주와 더불어 취업인구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전문직, 사무직의 임금노동자인 고급인력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인재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의 지역개발 논의에서 강조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지역차원에서 육성을 넘어, 점차 확대되는 노동시장 영역과 전문인력의 높은 이동성향을 고려하는 동태적인 접근 그리고 고급인적자원의 상호학습적 관계를 지역화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어: 인구이동, 지역발전, 유입인구, 유출인구, 인재유출

* 이 논문은 2000년도 제주대학교발전기금 학술연구비(지역사회발전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부교수

1. 서론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지식기반 지역개발 패러다임과 맞물려 기존의 물적자원보다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기존의 지역개발이 자연자원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산업구조, 사회기반시설, 노동력 등과 같은 입지요인에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새로운 내생적 지역개발을 위해 지식기반의 생산과 혁신을 보다 중요한 성장동인으로 고려한다(김선배, 2001; 박삼욱·최지선, 2000). 이러한 최근의 지역개발 방향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인구이동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인구이동을 고려해 보면,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인적자원의 선별적 이주에 의해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급인력의 유출(brain drain)은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며(서찬수, 2002; 임정덕·장영재, 1997), 최근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인구의 양적 측면의 변화보다는 특정 지역 인구의 질적 변화에 따른 지방의 쇠퇴에 대한 관심의 표출로 고려된다. 그러나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양적 그리고 지역개발 논의에서는 이론적, 정태적 측면에 관심이 치중되어 질적 그리고 동태적 측면의 인구이동 검토는 이들을 연계시키는 기초 작업으로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시의 인구이동을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고려해 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로 유입되는 인구와 유출되는 인구의 개인별 속성,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속성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 이는 제주시 인구이동의 특징을 질적 측면, 특히 인재유출을 포함한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해 보며, 최근의 지식산업경제 그리고 도서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인구이동과 지역인적자원

1. 인구이동과 지역발전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지역의 선별성과 인구 특성의 선별성을 포함하고 있다(권상철, 2001; Foulkes and Newbold, 2000; Fielding, 1992; Savage, 1988). 대다수의 국가에서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양상은 이촌향도의 대도시 지향으로 인해 지역불균형발전을 야기시켜 왔다. 여기에 더하여 선별적 인구의 이동은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지역적 구성에 변화를 유발하여 보다 지역간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기에,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김형국, 1983). 지역발전과 관련된 인구특성으로는 인구규모의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연령, 성별구조의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교육, 직업 등이 중요한 질적 척도가 되며, 이들 특정 지역의 인구특성들은 두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차이와 이동자의 동기,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리적 인구이동에 의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정보의 보편화로 인해 인구이동은 점차 빈번해 지며 지역의 인구특성을 비교적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정치, 경제 기능의 집중과 이에 따른 취업, 교육 기회를 찾아 이주하게 되는 인구편중은 순환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지역불균형발전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주성향은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개인들에게 높게 나타나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인적자원은 풍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그 역으로 이동하며 더욱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격차를 지방에서 보면 선별적인 이주자들의 유출은 그 지역의 교육수준을 낮추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을 낮추게 된다(류장수, 2002; Ritsila and Ovaskainen, 2001; Joly, 2000).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타지역들은 그 반대로 종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지역균형성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역간 격차가 또다시 인력양성과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야기되

고 있다(이희수, 2001; 조명래,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선별적 인구이동은 인적 자원의 지역집중으로 이어지기에 최근 새로운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지는 지역인적자원 논의와 연계시켜 고려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발전이 기존 비교우위측면에서 강조되던 자원, 자본과 물리적 노동에 기반한 비교우위 형성과는 달리 지식의 창출과 끊임없는 개량에 기반한 지역인적자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 지역개발의 중심이 토지와 자원 등의 물적 자원 개발에서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로 전환되며, 인적 자본은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경쟁우위의 주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의 결정 요소로서 자연자원과 사회간접자본이 인적 자원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다(이희수, 2001; Mathur, 1999). 최근의 지식기반경제 논의에서 학습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지역 또는 국가의 성공은 다른 무엇보다 학습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경제를 말하며, 여기에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이란 지역혁신체제로서 지역의 혁신성, 창의성, 학습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조명래, 1998; Morgan, 1997). 지식기반경제, 학습경제로의 이행에 상응하여 지역단위 혁신 시스템인 학습지역 만들기에 관심을 돌린 지역은 인적자원개발에 주목한다. 지역 또는 국가의 경쟁원천이 물적자원에서 지식의 생산 및 활용주체인 인적자원으로 이행하며, 양 위주의 인력(manpower) 개념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 개념으로 이동하면서 지식·정보 위주의 신산업 구도에 부합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되며, 성장 주도분야가 전통적 제조업에서 첨단 업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며, 자본의 이동 못지않게 고급 인적자원의 이동이 지역 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역인적자원의 확보와 개발은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적인 전략이 된다(Hansen et al., 2003; Clarke and Gaile, 1998).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경제규모가 작으며, 지역개발 또한 기존의 농업기반위에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루어져 보다 다변화된 지역경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지역은 '이주, 송금, 지원 그리고 공공부문(MIRAB: Migration, Remittance, Aid, Bureaucracy)'으로 특징지워지는 도서경제 모델로 접근될 수 있는데, 1) 선도적인 지역/국가의 발전 부문이 외부와의 교역이나 민간부문의 투자

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 지원에 의존하여 정부 부문이 비대한 형태로 외부경제의 변화에 취약한 의존적인 경제 특성을 보인다(Bunwarree, 2001; Treadgold, 1999).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불균등한 지역발전 상황에서는 취업 또는 교육기회를 찾아 이주가 높게 나타나며 인재유출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도 또한 이러한 경제 특성과 유사한 양상이 보여지는데,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지식경제를 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지역산업구조로의 전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그 대안으로 다양한 전략과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식기반경제,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논의에서 강조하는 지역혁신체제와 연계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듯하다. 제주의 경쟁력은 산업특성상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지적자원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지적자산의 감소는 인재유출로 나타나고 있다(이경주, 2003). 특히 인적자원의 지역적 구성과 지역화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보다는 외부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²⁾.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내 우수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내 기술과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외부자본을 지역내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도 다른 비수도권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의 유출과 부족이 추정되기에 지역차원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인적자원은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언급되지만, 점차 그 이동성이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
- 1) MIRAB 용어는 태평양 도서지역의 경제·사회 특성을 기술하며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지역발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수출상품과 민간부문 투자 비중과는 달리 경제의 주도적인 부문이 정부보조, 원조 등과 정부조직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Treadgold, 1999).
 -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관광·투자자유도시 건설, 교역·업무자유도시, 그리고 금융자유도시로 단계적 육성을 제시하며 이의 추진 방안에 전문인력 양성과 외국인 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 교육부문의 개방화도 포함되어 있으나(양덕순, 2002; 양진건, 2002), 아직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많은 논란 또한 예상되고 있다.

있으며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 매우 높은 이동성향을 보이기에 인적자원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의에 인구이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필요성이 크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인구이동을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역불균형발전을 인적자원의 지역편재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접근이라 하겠다. 인구이동은 개인 차원에서 효율 증대를 위해 이동결정을 하게 되고 이들의 합산은 지역별 인적자원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인구이동은 점차 더 활발해 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고려될 수 있는 특정 지역의 인구 특성과 이동에 대한 관심은 인구규모의 변화와 같은 양적인 면에 치우쳐, 이동인구의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질적 측면의 특성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고려하는 연구는 미미하였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리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이동을 평가해 볼 좋은 사례지역이라 하겠다. 제주도는 인재유출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상적 논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위하여 강조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별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의 질적 변화에 대한 검토는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양성에 더하여 지역별 인적자원의 적절한 구성과 활용을 위해 중요한 기초 연구로 그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시의 인구이동을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출으로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컴퓨터화일 형태로 이용가능한 개인별 2퍼센트 원시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는 개인별로 세부 자료를 제공하기에 이동경험과 개인속성을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인구이동을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1995년 그리고 2000년의 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인구이동은 조사항목 중 5년 전 거주지를 사용하여 유입, 유출인구를 구분하여 이들의 속성을 비교하였다. 즉, 현재거주지가 제주시이면서 5년전 거주지가 제주시가 아닌 경우 유입인구, 그리고

5년전 거주지가 제주시이면서 현재 거주지가 제주시가 아닌 경우를 유출인구로 고려하였다(참조: 이창기, 1999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이를 기초로 제주시로 유입된 인구나 제주시로부터 유출된 인구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대비시켜 봄으로써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제주시 인구이동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입, 유출인구를 육지부와 제주도로 구분지어 살펴봄으로써 도내, 도외이동을 함께 고려하였다.

III. 제주시의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제주시는 2000년 현재 인구 279,996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513,260명의 약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중심도시이다. 제주는 국토의 변경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 인구의 흡인력이 미약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라 자연증가에 비해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인구는 관광개발과 더불어 육지부로부터의 유입이 늘어나며 양적인 인구증가를 보이는데, 제주도 인구의 총이동량을 살펴보면 70년대 초반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도내의 중심지라는 유입요인이 작용하며 이주인구의 대다수를 수용하며 성장하였으나, 외적으로 육지부에서 꾸준히 진행된 도시화가 유출요인으로 또한 작용하며 인구의 유동성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송성대, 1985; 황석규, 1985).

제주시는 제주도 내에서 지속적인 인구집중도의 증가를 보이며 1990년 이후 제주도 전체 인구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행정, 교육, 교통의 중심지로 도내 그리고 육지부와외의 관문도시로 역할하며, 도내 여타 지역보다 생활 기회가 확대, 개방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여 점차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³⁾. 제주시의 인구이동을 질적인 측면, 특히 선별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해 보는 것은 최근의 지역개발 논의에서 강조하는 지역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주국

3) 제주도내 제주시의 인구집중도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5년 41.5퍼센트에서, 1990년 45.2퍼센트, 1995년 51.1퍼센트, 그리고 2000년에는 54.6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제자유도시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하다. 제주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경험하며 고급 인력의 부족이 추정되고 있지만(이경주, 2003),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지역발전 논의에서 강조되는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연계시켜 제주 지역발전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연구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1.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속성 비교

제주시는 제주도 전체인구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임과 동시에 기능면에서 보면 제주도 전체 사업체 수의 59.5퍼센트, 종사자수의 61.6퍼센트를 차지하는⁴⁾ 제주도내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인구이동면에서 제주도내 그리고 육지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관문도시로 역할하고 있다.

제주시의 인구이동을 도내와 육지부로 구분지어 개관해 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제주시의 인구유입은 대략 도내와 육지부에서 반 정도씩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육지부로부터의 유입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1990년의 50.4퍼센트에서 2000년에는 61.1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출의 경우 육지부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유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유입, 유출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는 도내에서는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 비율이 높아 제주도내에서의 인구집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지부와의 인구이동에서는 유입에 비해 유출이 높은 비율을 보여 인구유출이 이루고 지고 있으나 유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출은 감소하고 있어 점차 유입, 유출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제주시로 이주하는 대다수는 북제주군에서 유출된 인구이지만,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며 서귀포시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에서 제주시가 중추도시화 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유출 비중이 북제주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주시의 교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제주시의 사업체수는 2001년 현재 23,979개(제주도는 40,331개), 종사자수는 제주시가 101,156명(제주도는 164,320명)으로 조사되었다(제주도, 2002).

〈표 1〉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도내, 육지부 지역 분포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도내	49.6	21.6	45.3	27.6	38.9	35.7
서귀포	6.8	4.0	9.9	9.0	10.4	8.7
북제주군	25.3	15.2	19.6	15.4	15.3	19.3
남제주군	17.5	2.4	15.9	3.1	13.2	7.7
육지부*	50.4	78.4	54.7	72.4	61.1	64.3
서울	14.8	25.2	16.7	23.8	15.7	23.7
경기도	5.0	12.5	8.0	11.9	10.2	15.1
부산	9.6	15.5	7.5	4.5	9.6	4.8
경상남도	2.1	6.4	4.2	6.7	3.7	4.0
광주	2.0	1.8	1.1	3.1	3.3	3.9
전라남도	4.4	3.3	2.9	6.2	1.6	1.4
표본수	657	329	802	421	737	518

주: * 높은 비율을 보이는 도시/지역만 제시; 5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주시의 인구이동은 도내 보다 육지부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지 부와의 인구이동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매년 가장 높은 유입과 유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비율이 유출보다 높아 가장 선호되는 또는 기회 이주지역으로 고려된다. 다른 지역들은 그 중요도가 년도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990년의 경우에는 부산이 두 번째의 주요 인구 유입, 유출지였으나, 점차 그 중요도 특히 유출지로서의 중요도는 낮아지고 경기도가 서울과 유사하게 제주시로부터 이주하는 인구를 수용하는 주요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제주로 인구를 이주시키던 지역에서 점차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난 10년간 부산과 전라남도의 비중 감소와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 증가에서 보여지는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은 점차 심화되어가는 수도권지역의 집중화, 특히 경기도의 인구유입지역으로의 부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인구이동에서 거리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지역의 계층성을 반영하는 경제활동의 집중 등이 보다 중요해짐을 보여준다 하겠다.

제주시 이주자들의 평균나이를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인구층인 20대 중반이 주축을 이루며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평균 30세 미만을 보이고 있어 취업이나 학업과 관련된 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주인구의 평균나이를 도내와 육지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내의 경우 유출인구가 유입인구에 비해 나이가 많으며, 육지부의 경우에는 유입인구가 나이가 많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다 젊은 층이 육지부로 이주가 나가고 도내에서는 제주시로 유입되는 양상으로 관문도시로서의 제주시의 역할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2〉 제주시 유출, 유입인구의 평균나이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평균나이	26.9	26.3	27.0	29.1	28.4	28.5
도내	25.6	24.9	25.6	31.2	27.1	28.9
육지부	29.0	26.4	27.6	29.8	29.4	27.9
표본수	657	329	802	421	737	518

주: 5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주시 이주인구를 성별 그리고 결혼상태로 살펴보면 유입, 유출인구 모두에서 남자가 50퍼센트 미만으로 미미하나마 여자가 이동인구에서 다수를 보이고 있다. 유입, 유출인구간의 성비 차이는 1995년까지는 유출인구에서 약간 높은 남자비율이 나타나지만, 2000년의 경우 유입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남자비율이 나타나고 있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내의 이동에서는 유출에서, 육지부에서의 유입에서는 남자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주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제주시 유출, 유입인구의 성별, 결혼상태(기혼/미혼) 분포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성(남자)*	46.9	48.0	47.5	49.4	48.0	43.6
도내	45.1	43.7	45.5	52.6	47.4	49.7
육지부	48.6	49.2	49.1	48.2	48.4	40.2
결혼(기혼/ 미혼)**	64.1/32.4	61.5/35.4	60.7/34.4	58.5/34.9	60.4/33.0	60.4/30.9
도내	60.4/34.3	58.8/35.3	49.5/46.9	67.7/22.6	50.2/42.6	73.3/20.7
육지부	67.3/30.8	62.5/35.4	70.3/23.7	55.1/39.4	67.6/26.3	53.0/36.7
표본수	533	261	659	347	609	414

주: * 5세 이상, **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함. 결혼의 경우 기/미혼의 이혼, 사별 범주가 있으나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결혼 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혼자가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시로 유입하는 인구들은 생업의 취업기회를 찾아 기혼자들이 이주해 들어오는 성향 그리고 유출인구의 경우 미혼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취업기회와 더불어 교육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부적으로는 도내의 경우 1990년의 유사한 비율을 제외하곤 유출인구에서 높은 기혼자 비율이 나타나며 육지부의 경우 유출인구에서 높은 미혼자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제주시의 기혼자, 즉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인구층이 주거 또는 취업을 찾아 시외로 이주한 교외화를 반영하며⁵⁾, 육지부로의 유출의 경우 취업 또는 학업기회를 쫓아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이주해 나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5) 이를 간접적으로 통근·통학인구의 변화로 보면, 1990년의 경우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의 통근·학 인구는 9,386명이었으나 1995년의 경우 11,900명으로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어 어느 정도 제주시 인구의 주변 북제주군으로의 교외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통근·학 인구는 1990년 서귀포 2,706명에서 1995년 3,330명, 남제주군 3,349명에서 3,96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근·학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이주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제주시의 취업·교육기회를 쫓아 통근·학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주시 이동인구를 경제활동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보다 인구가동을 보다 선별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를 취업과 취학으로 구분하여 이주인구를 보면 유입인구가 유출인구에 비해 보다 높은 취업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시로 유입하는 인구는 취업우선 또는 취업기회를 찾아 이주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취학의 경우 유출에서 높은 비율이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유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표 4〉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경제활동상태(취업/취학)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전체	54.4/10.3	49.8/13.8	59.8/12.7	52.7/13.0	55.8/15.6	54.6/12.8
도내	50.4/18.0	57.6/5.1	53.8/23.6	55.9/6.5	49.8/25.9	63.3/7.3
육지부	58.4/2.6	47.5/16.3	65.0/3.4	51.6/15.4	60.1/8.4	49.6/15.9
표본수	533	261	659	347	609	414

주: 취업/취학 및 무노동 등이 있음; 15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도내와 육지부로 구분하여 보면, 도내 이주의 경우 유입인구에서 높은 취학비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시가 도내에서 교육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출에서는 취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육지부의 경우 취학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에서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학업기회를 찾아 육지부로 인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따라서 제주시는 도내에서 취학인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육지부로 취학인구를 유출하는 중간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제주시 이동인구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전체 이동인구를 대상으로한 경우에는 뚜렷한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유입인구에서 높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나타나며, 유출에서는 자영업자, 사업주 그리고 무급가족노동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주시는 임금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타 지역은 농업, 관광관련 자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종사상 지위 (임금/자영/고용/무급)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전체	77.9/12.8/ 6.2/3.1	75.4/13.1/ 6.2/5.4	71.6/11.2/ 9.6/7.6	78.7/10.4/ 4.4/6.6	79.4/11.8/ 6.2/2.6	67.3/20.4/ 5.8/6.6
도내	80.6/11.2/ 7.5/0.7	55.9/11.8/ 14.7/17.6	73.8/12.2/ 7.3/6.7	71.2/15.4/ 3.8/9.6	72.0/13.6/ 9.6/4.8	50.5/30.5/ 5.3/13.7
육지부	75.6/14.1/ 5.1/5.1	82.3/13.5/ 3.1/1.0	70.0/10.4/ 11.3/8.3	81.7/8.4/ 4.6/5.3	83.7/10.7/ 4.2/1.4	79.4/13.0/ 6.1/1.5
표본수	290	130	394	183	340	226

주: 1985년 조사에는 종사상지위 항목이 없었음; 15세 이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임금: 임금, 봉급근로자; 자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무급 가족 종사자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육지부의 경우 전반적인 모습은 유출인구에서 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자영업자, 고용주, 그리고 무급가족노동자는 유입에서 초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비록 규모면에 크지는 않지만 2000년에는 역으로 임금근로자가 유입초과를 보이고, 자영업자나 고용주가 유출초과를 보여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4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이 초과달성되며(제주도, 2002) 나타난 확대된 취업기회를 반영한다 하겠다. 이러한 양상의 지속여부는 2002년부터 시작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추진 실적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제주시는 도내에서는 지속적인 임금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무급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은 제주시보다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 더욱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이 보여진다. 이는 농업이나 관광과 관련한 활동들이 제주시외의 지역에서 보다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1990년을 제외하고 유출보다 유입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조금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제주시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시가 도내에서는 주도적인 집중지로 역할하여 왔으며, 점차 육지부와외의 인구가동에서도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가동을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것은

교육수준과 직업의 종류이다(표 6과 7).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취업자 교육수준을 보면 우선 유입, 유출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나타나는데 어느 해에나 대략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오며 이동인구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게 나타나 대학교이상이 30퍼센트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대학교이상 교육수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⁶⁾. 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동인구의 고학력화, 즉 노동시장 영역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어 가며 고급·전문 인력일수록 이주성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6〉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취업자 교육수준

(초등이하/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대학원)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전체	3.8/12.1/ 61.4/5.9/ 15.5/1.4	6.2/14.6/ 46.9/6.2/ 24.6/1.5	4.8/8.9/ 46.2/8.1/ 27.4/4.6	8.2/8.7/ 46.4/12.0/ 21.9/2.7	3.8/5.3/ 36.5/19.1/26. 8/8.5	4.4/8.4/ 42.5/14.2/ 27.9/3.1
도내	3.7/11.9/ 62.7/6.0/ 15.7/0	5.9/11.8/ 58.8/8.8/ 14.7/0	3.7/9.1/ 51.2/12.2/ 23.8/0	7.7/9.6/65.4/ 9.6/7.7/0	4.8/4.0/36.8/ 29.6/20.8/4.0	6.3/9.5/ 54.7/12.6/ 16.8/1.1
육지부	3.8/12.2/ 60.3/5.8/ 15.4/2.6	6.3/15.6/ 42.7/5.2/ 28.1/2.1	5.7/8.7/ 42.6/5.2/ 30.0/7.8	8.4/8.4/ 38.9/13.0/ 27.5/3.8	3.3/6.0/ 36.3/13.0/30. 2/11.1	3.1/7.6/ 33.6/15.3/ 35.9/4.6
표본수	290	130	394	183	340	226

주: 15세 이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도내이동에서는 제주시가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이상의 인력을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졸업이하의 경우는 유출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분급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육지부와의 이동에서는 유입인구에

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학력을 인구조사에서 보면 대학교이상 졸업자가 1990년 14.1퍼센트, 1995년 18.3퍼센트, 그리고 2000년에는 21.0퍼센트로 나타난다(통계청, 각년도).

서 고등학교졸업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며, 유출인구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전문인력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석사학위이상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높은 유입초과를 보이고 있어 고급인력의 유입 또한 보여 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시 이동인구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대학교 학력의 전문인력의 유출과 중·고등학교 졸업의 유입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대학원 학력의 고급인력은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 단기 파견근무로 온 경우가 많아 이들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지역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제주시 이동인구 취업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표 7>과 같다. 직업구분은 인구조사 시기별로 세부 구분이 조금씩 달라 유사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대분류를 따랐다⁷⁾. 제주시의 도내, 육지부 전체 인구이동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업이 판매직과 노무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판매직과 노무직은 점차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전문직과 사무직의 이동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고급인력의 유입과 유출인구의 평균 비율은 1990년의 35퍼센트 정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의 45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동인구의 직업 분포를 도내와 육지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내의 경우 유출 인구가 농수업에서, 유입의 경우 사무직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판매직의 경우 지속적인 유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기타 전문직의 경우 제주시로의 유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무직의 경우 유출이 유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문직과 사무직의 경우 유입인구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나 2000년에는 약 44퍼센트를 보여 26퍼센트의 유출인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육지부와외의 인구이동에서는 전문, 사무직, 그리고 노무직에서 높은 비율이 유출인구에서 나타나, 인재유출 상황과 더불어 제조업분야에서 다수 제공되는 저숙련 기능직

7) 직업구분을 유사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대분류를 따랐는데, 1995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전문직은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하며, 사무직은 4. 사무직, 판매직은 5.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농수업은 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그리고 노무직은 7. 기능원 및 관련, 8. 장치 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근로자를 포함한다.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0년의 경우 전체 육지부로의 유출인구 중 60퍼센트가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나타나며 이중 전문직이 약 44퍼센트에 이르는 고급인력의 유출이 두드러진다.

〈표 7〉 제주시 유입, 유출인구의 취업자 직업분포

(전문직/사무직/판매직/농수업/노무직)

	1990		1995		2000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전체	14.8/19.3/ 40.0/2.8/ 23.1	16.4/18.8/ 28.1/7.8/ 28.9	20.8/18.8/ 31.7/3.6/ 25.1	29.0/8.2/ 21.3/6.0/ 35.5	30.0/15.3/ 30.6/2.9/ 21.2	31.1/14.7/ 22.2/13.8/ 18.2
도내	14.2/26.1/ 29.9/2.2/ 27.6	20.6/5.9/ 29.4/23.5/ 20.6	20.7/20.1/ 23.2/5.5/30.5	19.2/13.5/ 21.2/11.5/34.6	23.2/20.8/ 24.8/5.6/ 25.6	13.7/12.6/ 16.8/29.5/ 27.4
육지부	15.4/13.5/ 48.7/3.2/ 19.2	14.9/23.4/ 27.7/2.1/ 31.9	20.9/17.8/ 37.8/2.2/ 21.3	32.8/6.1/ 21.4/3.8/ 35.9	33.3/11.9/ 34.3/1.4/ 19.0	43.8/16.2/ 26.2/2.3/ 11.5
표본수	290	130	394	183	340	226

주: 15세 이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제주시 이동인구의 특성은 교육수준과 직업종류에서 고급인력의 유출로 나타나며, 이는 최근의 지역기반산업 또는 지역혁신체제 육성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논의에 비추어 고급·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 고급인력은 이동성향이 높고 넓은 노동시장 영역을 가지기에 지역차원의 육성을 넘어 이들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고급인력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학습(interactive learning)과 뿌리내림(embeddedness)을 촉진시켜 지역혁신을 위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조성하는 방안이 내생적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비추어 볼 때, 제주시의 인구이동 특성은 인재유출의 저감과 유입되는 인재의 지역화를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제주도 인구이동의 특성과 지역발전 논의

제주시 인구이동을 유입과 유출인구로 구분하여 이들의 속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선별적인 지역간 인적자원의 이동임을 보여준다. 제주도 유입, 유출인구를 도내와 육지부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두드러진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우선, 개략적인 지리적 특성으로 제주시의 인구이동은 제주도내 보다 육지부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출인구는 지속적인 서울로의 이주를 나타내고 있다. 근간 들어 경기도가 새로운 중요 이주지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입인구 또한 경기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제주시가 북제주군을 위시하여 다른 도내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입하는 집중 양상을 보이지만, 북제주군으로 유출하는 인구 또한 높은 비율로 주거지 교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구이동 특성을 보면, 육지부의 인구유출은 학업기회를 찾아 이루어지고 있음이 유출인구의 높은 취학 비율에서 보여 진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제주시가 취학인구를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하고 있어, 제주시가 계층화된 도시체제에서 단계적 상승기회를 제공하는 지역(escalator region)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권상철, 2000; Fielding, 1992). 취업인구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 특성을 보면, 육지부의 유출인구는 봉급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관광관련 서비스로 특화된 도시경제에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시로 유입되는 육지부 인구는 자영 또는 고용사업주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관광 관련 업종에서 소규모 자영업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진영, 1995). 육지부의 유출인구는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유입인구에서 대학원 학력의 고급인력이 수적으로는 적으나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동인구의 직업분포는 점차 하위직에서 전문직과 사무직의 상위직종이 높은 이동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의 유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 교육수준과 더불어 인재유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서지역 경제에 대한 MIRAB 특성 중 인구유출

(migration)과 정부기관(bureaucracy) 비대는 제한된 취업기회와 이에 따른 인구 유출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도 민간기업 부채의 이러한 도서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0년에 반전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1994년부터 시행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투자 효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주시의 인구가동 특성은 점차 근거리 지역과의 교환은 줄어들고 도시계층의 상층인 수도권지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교류에서 고급인적자원의 유출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높은 교육수준의 전문직 인력은 높은 이동성향을 나타내며 이들의 노동시장 영역이 전국 또는 세계 차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인적자원 확보는 해당지역내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자체 양성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에서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재지역할당제가 제안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을 국가고시에서 인구비례로 선발하자는 것으로 지역 발전 측면에서 우수인력을 지방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인적자원 측면에서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차원의 인적육성은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취업기회를 또한 확보해야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지역혁신 또는 학습지역 논의에 비추어 고려해 볼 또 다른 점은 개인 차원의 인적자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인적자원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제주로 이주해온 전문 인력들은 다수 정부행정직 종사자나 대기업 관리직 종사자로 일시적 거주지로 생각하고 이주해온 경우가 많으며, 이동성향 또한 높은 집단이라 하겠다(황석규, 1985). 이러한 경우 양적 측면의 인적자원은 충족된다 할지라도 인적자원의 지역화, 협력적 인간관계의 지역적 구축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더불어 이를 교환, 활용하는 상호학습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인재육성은 전문인력의 높은 이주성향과 지역화를 통한 활용 측면을 고려해, 제주지역의 상황에서는 자체 인력 양성은 농업과 관광부문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를 겨냥한 지역특화형 인력개발에 치중하고 고급인력은 외부로부터 유치하고 지역사회에서 상호학습과 협력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 점차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인적자원 육성을 단지 자체 육성으로 한정짓지 말고 인적자원 유치를 통한 인재 확보 또한 한 가능한 전략으로 고려하는 동태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II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과도한 인구나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쇠락으로 이어져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최근의 지역발전 논의는 지식기반산업을 강조하며 인적자원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며 진행되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 기업 유치, 사회기반시설 확충,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회의산업, 외국자본과 기업의 유치 등 다각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전략의 근원적인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확보는 이러한 전략수행을 위한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지역차원의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시의 인구이동을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하며 유입, 유출인구의 속성비교를 통해 지역인적자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본 기초적인 시도라 하겠다.

최근의 인적자원에 기초한 지역개발 논의에 비추어, 지역인재유출은 동태적인 측면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이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상적으로만 언급이 되어 실증적인 분석은 부족하였다. 인구이동을 선별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고려해 볼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인구이동에 대한 관심은 지방의 우수인력 확보를 단지 지역별 육성의 차원을 넘어,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은 점차 교통·통신의 발달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 국가, 세계단위의 노동시장 영역을 가지며 매우 높은 이주성향을 보이기에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

해 볼 필요가 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적자원의 이동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추후 지역개발 논의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단순히 정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동측면을 고려한 동태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상황에서 제주의 경우 한정된 인구나 경제규모로 인해 보다 인적자원의 이동에 대한 관심이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전략에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권상철(2000), 「한국의 인구이동과 대도시의 역할: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 57-68.
- 권상철(2001), 「인구이동과 지역발전: 한국에서의 인적자원 유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 67-79.
- 김선배(2001),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 61-76.
- 김진영(1995),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312-342.
- 김형국(1983), 「인구이동과 지역발전」,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57-88.
- 류장수(2002),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방안」, 『지역사회연구』, 10: 1-20.
- 박삼욱·최지선(2000), 「성장촉진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이론과 정책과제」, 『지역연구』, 16: 1-25.
- 박찬석(2001), 「21세기 지역분권화 정보화와 지역사회의 과제」, 『지역사회연구』, 9: 15-23.
- 서찬수(2002),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지역연구』, 18:

- 25-47.
- 송성대(1985), 「제주시 인구성장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사회편)』, 20: 241-257.
- 양덕순(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계경쟁력 제고」, 『국토』, 246: 84-90.
- 양진건(2002),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고등교육의 재구조화」, 『백론논총』, 4: 235-257.
- 이경주(2003), 「제주의 인적·지적 경쟁력 현황과 향상 방안」, 『제주발전포럼』, 4: 26-32.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희수(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임정덕·장영재(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1996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주도(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제주도(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조명래(1998),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韓國地域開發學會誌』, 10: 1-18.
- 통계청(1985,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원시자료』.
- 황석규(1985), 『도시내 상층이주민의 적응에 관한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Bunwaree, Sheila(2001), "The marginal in the miracle: human capital in Mauritiu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1: 257-271.
- Clarke, Susan and Gaile, Gary(1998), *The Work of Ci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ielding, A. J.(1992),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South East as an "Escalator" region, *Regional Studies*, 26: 1-15.
- Foulkes, Matt and Newbold, Bruce(2000), "Migration Propensities, Patterns,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comparing Mexican, Cuban, and Puerto Rican Interstate Migration, 1985-1990," *Professional Geographer*, 52: 133-145.
- Hansen, Susan, Ban, Carolyn, and Huggins, Leonard(2003), "Explaining

- the "Brain Drain" from Older Industrial Cities: the Pittsburgh Reg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7: 132-147.
- Joly, Daniele(2000), "Some Structural Effects of Migration on Receiving and Sending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38: 25-40.
- Mathur, Vijay K.(1999), "Human Capital-Based Strategy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3: 203-216.
- Morgan, K.(1997), "The Learning Region: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31, pp. 491-503.
- Ritsila, Jari and Ovaskainen, Marko(2001), "Migration and regional centralization of human capital", *Applied Economics*, 33: 317-325.
- Savage, Mike(1988), "The missing link?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9: 554-577.
- Treadgold, Malcolm(1999), "Breaking out of the MIRAB mould: historical evidence from Norfolk Island", *Asia Pacific Viewpoint*, 40: 235-249.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ssessing the Migrants' Characteristics to and from Jeju city

Kweun, Sang-Cheul

〈Abstracts〉

Migration has often been considered as a geographic movement, but it necessarily involves selective nature of migrants'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e selective labor market related migrants' attributes are important to be considered in the recent notions of human capital bas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is paper compares the migrants' characteristics to and from Jeju city using the 2 percent individual data sample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from 1985 to 2000. Results show that Jeju city plays roles in absorbing migrants from other parts of Jeju while sending more migrants for studying and working to mainland regions as well, which could be described as escalator region. Migrants to mainland are relatively high in educational levels and their occupations are largely highly skilled professional or office works, which indicates the brain-drain from Jeju city. With respect to the recent emphasis on human capital in the discussions of knowledge-based economy, this study brings attention to the human capital expansion not in static terms such as nurturing them within regional institutions, but in dynamic terms considering the higher migration tendencies of professional and skilled workers with larger labor market areas as well as promoting their cooperative social relationships within Jeju city.

Key words: migration, regional development, in-migrants out-migrants, brain-drain